

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체장애 / 내부기능장애 / 지적장애 / 정신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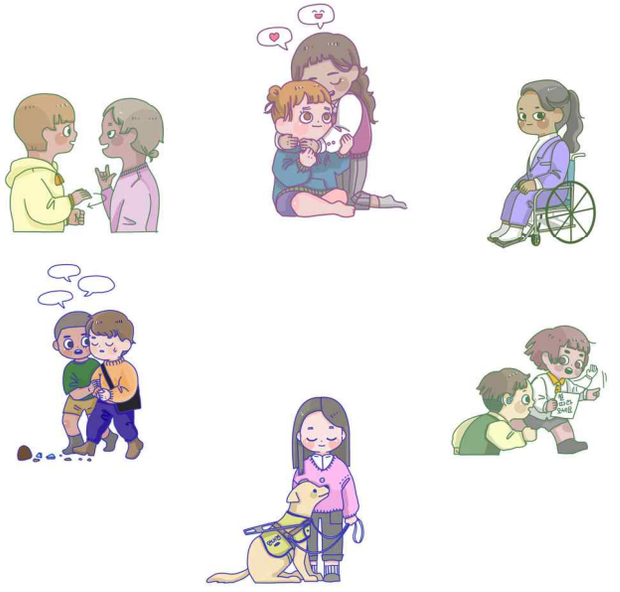
발 행 일 : 2018년 1월 14일
발 행 처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발 행 인 :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저 자 : 김수동, 이사홍, 남지영, 봉수현
삽화/디자인 : 이 화 영
지 원 기 관 : 행정안전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에이블 허브 5층, 501호
전 화 : 02-833-3095
F A X : 02-833-3096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The Human Rights Foru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체장애 / 내부기능장애 / 지적장애 / 정신장애

저 자 : (사)한국기업재난관리학회 Korea Society of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김수동, 이사홍, 남지영, 봉수현)
삽 화: 이화영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The Human Rights Foru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장애유형별 통합 재난 매뉴얼

시각장애 / 청각장애 / 지체장애 / 내부기능장애 / 지적장애 / 정신장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The Human Rights Forum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Korea

00. 서론 5
01) 매뉴얼 소개 5
02) 장애인의 정의 및 유형 6
03) 재난의 정의와 유형별 특징 8

01. 시각장애 27
01) 재난 시에 어려운 것 27
02) 평소의 준비 28
03) 재난이 일어났을 때 30

02. 청각장애 31
01) 재난 시에 어려운 것 31
02) 평소의 준비 32
03) 재난이 일어났을 때 34

03. 지체장애 35
01) 재난 시에 어려운 것 35
02) 평소의 준비 36
03) 재난이 일어났을 때 37

04. 내부기능장애 39
01) 재난 시에 어려운 것 39
02) 평소의 준비 40
03) 재난이 일어났을 때 42

05. 지적장애 43
01)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 재난 시에 어려운 것 43
02) 평소의 준비 44
03) 재난이 일어났을 때 46

06. 정신장애 47
01)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47
02) 재난 시에 어려운 것 48
02) 평소의 준비 49
03) 재난이 일어났을 때 51

00. 서론

① 매뉴얼 소개

(1) 개발 배경 및 의의

- 상대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이 재난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 발생 전부터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에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에게 재난을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침을 제시하고자 본 매뉴얼을 개발하였습니다.
- 본 매뉴얼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이 재난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신체와 생명을 보존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내용을 숙지하고 장애인과 가족 및 활동보조인,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활용 대상자

- 시각, 청각, 지체, 내부기능, 지적, 정신 장애 6개 유형의 장애인이 재난 시에 스스로에게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장애인의 가족과 활동보조인이 재난 시 장애인을 보조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특징

- 장애유형별 특징을 반영하여 각 유형의 장애인이 재난시에 겪는어려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난 발생 전의 준비와 재난 시의 대응으로 구분하여 제시합니다.
- 장애인 스스로의 준비, 대응사항과 주변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제시합니다.

② 장애인의 정의 및 유형

(1) 장애인의 정의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인을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장애에 대해서도 장애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2) 장애인의 유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서 구체적인 장애인의 유형을 제시하고 있으며, 크게 신체적 장애 12가지 유형과 정신적 장애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모든 유형의 장애인은 재난 발생 시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부상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10만 명당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장애인이 4.7배 높은 편입니다.

- 그 가운데 특히 피난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며, 지체장애인 가운데 휠체어를 이용하여 이동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이동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거의 대피를 할 수 없습니다.

② 장애인의 정의 및 유형

●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우 평소에 익숙한 장소나 이동로가 아니면 긴급한 상황에서는 당황하여 대피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한편 정신적 장애의 경우 대피소와 같은 좁은 공간이나 익숙하지 않은 장소에 어려움을 겪으며, 주위 사람들의 많은 배려가 필요합니다.

NO.	장애인 종류 및 기준		구분
1	지체장애인	신체를 구성하는 골격, 관절, 근육, 신경 등이 질병, 외상 등으로 인해 운동 상의 장애	신체
2	뇌병변장애	뇌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	신체
3	시각장애인	절대 맹 또는 사회 맹(법정 맹) 등으로 인해 시력 기능이 영구적으로 저하되거나 결여된 장애	신체
4	청각장애인	청력 기능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저하되거나 결여된 상태 농인 / 난청인 장애	신체
5	언어장애인	의사소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즉, 말이 거칠 거나, 불명확하거나, 불쾌감을 주는 장애	신체
6	지적장애인	지능(지능지수 70 이하)이 떨어져서 일상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신체
7	자폐성장애인	출생 후 22 세 미만에서 정상적인 발달이 지체 및 정지되는 장애	신체
8	정신장애인	생물학적 · 심리적 병변으로 인해 정신기능(지능, 지각, 사고, 기억, 정동, 성격 등)의 이상을 통한 일상 및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 장애	신체
9	신장장애인	인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체내의 수준을 유지하게 시켜주는 정상적인 신장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애(만성신부전증)	신체
10	심장장애인	심부전증, 심근경색, 협심증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현저한 불편이 있는 장애	신체
11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장애	신체
12	간애장애인	간의 만성적인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장애	신체
13	안면장애인	안면 부위의 변형, 기형(면상 반흔, 색고 침착, 함몰 등) 등으로 인하여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	신체
14	장루요루장애인	장루, 요루장애 : 배변, 배뇨 기능장애로 인해 장루, 요루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이 불편한 장애	신체
15	뇌전중장애인	간질에 의한 뇌세포 신경의 손상으로 발작 등 일상 및 사회생활이 불편한 장애	신체

③ 재난의 정의와 유형별 특징

(1) 재난의 정의

● 재난(disaster)이라는 용어는 별의 불길한 모습을 상징하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하늘로부터 비롯된 인간이 통제 불가능한 해로운 영향'을 의미하였으나, 경제발달 및 사회구조의 다변화에 따라 재난의 개념과 범주도 다양화되었습니다.

● 여러 가지 정의 중 UN ISDR(재난경감국제전략)의 정의에 의하면 '지역 또는 사회가 자체의 인적 · 물적 자원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인적, 물적, 경제 · 환경적 피해를 초래하여 영향을 받은 지역 또는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상태'로서 위험요인(hazard)과 취약요인(vulnerability)이 결합된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험요인"은 '인명손상, 재산피해, 사회 · 경제적 혼란, 환경악화 등 잠재적으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리적 사건, 현상 및 인간활동'을 지칭하는 것으로 자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과 인위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취약요인"이란 '지역 또는 사회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소에 따라 그 지역 또는 사회가 위험의 영향을 받기 쉬운 정도(위험에 대한 노출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공표되기 이전까지 "disaster"라는 용어에 대해 "자연재해" 또는 "인위재난"으로 이원화되어 사용해왔으나, 이원화된 개념에 의한 혼동을 피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disaster"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법에서는 "disaster"를 "재난"이라는 용어로 통일하였으며, 자연적 요인에 의한 것과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다각도로 재난의 개념에 관하여 살펴보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재난이란 우선 자연적, 인적 또는 사회적인 현상에 관계없이 인간생활과 관련된 피해규모, 그리고 그 피해당사자 또는 사회의 대응처리능력 등과 관련하여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③ 재난의 정의와 유형별 특징

(2) 재난의 유형

●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자연재난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 ·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 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로서, 각각의 재난의 특징과 그에 따른 대비 및 대응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태풍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 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으로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는 자연현상을 의미합니다.

강풍으로 인해 건물의 창문이 깨지거나 간판이 떨어져 이로 인한 부상의 위험이 있으며, 태풍과 함께 동반되는 호우로 인해 침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준비** : 되도록이면 외출을 삼가하고 상습 침수 지역이나 저지대에 접근하지 않고, 창문과 출입문이 파손되지 않도록 정비합니다.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하여 내 지역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재난에 대한 위험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대피를 위한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가족과 사전에 약속을 정합니다.

***대처방법** : 대피 시에는 수도, 가스, 전기를 차단합니다. 도로, 상수도가 파손된 경우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고립되었을 경우에는 119나 112에 신고합니다.
침수된 도로와 교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출입 전 피해여부를 확인합니다.

수돗물과 저장식수의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침수된 식재료와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③ 재난의 정의와 유형별 특징

홍수

홍수는 큰 물 또는 하천의 물이 넘쳐흐르는 자연현상으로, 수해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의 홍수의 주요 원인은 여름철 장마기간의 집중호우와 7~9월 한반도를 통과하는 태풍으로 인한 국지성 호우입니다.

다리, 자동차, 건물, 도로, 운하 등의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며, 저지대는 침수가 되고 이로 인한 감전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물이 오염되므로 비위생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수인성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전준비** : 외출을 가급적 삼가하고, 상습 침수 지역이나 저지대에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하여 내 지역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재난에 대한 위험정보를 수신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대피를 위한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침수 시 대피장소를 미리 확인하며, 가족과 약속을 정합니다. 거주지 주변의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합니다.

***대처방법** : 대피 시에는 수도, 가스, 전기를 차단합니다. 도로, 상수도가 파손된 경우 동사무소나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고립되었을 경우에는 119나 112에 신고합니다.
침수된 도로와 교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며, 대피 후 집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 출입 전 피해여부를 확인합니다.
수돗물과 저장식수의 오염여부를 확인하고 침수된 식재료와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③ 재난의 정의와 유형별 특징

황사 / 미세먼지

황사는 중국과 몽골 내륙에서 발생한 미세한 모래먼지가 날아와 지표면에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황사는 항공기 엔진이나 반도체 등의 정밀기계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호흡기관에 침투하거나 눈 질환을 유발하는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중 입자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으로서, 지름이 10㎛ m보다 작은 미세먼지(PM10)와 지름이 2.5㎛ m보다 작은 미세먼지(PM2.5)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인간의 호흡기에 침투성이 높으며 유해한 화학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전준비** : 실내 공기정화기, 가습기 등을 준비하고 미세먼지나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점검합니다. 식품이 미세먼지,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용기에 보관하고 식재료는 충분히 세척 후 요리합니다.

***대처방법** : 미세먼지와 황사가 발생하는 경우 외부 활동을 자제합니다. 외출 시에는 보호안경, 마스크, 긴 소매 의복 등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

③ 재난의 정의와 유형별 특징

대설

대설이란 우리나라의 24절기 중 하나인 소설과 동지 사이의 절기를 의미하며 동시에 아주 많이 오는 눈을 뜻합니다.

순식간에 교통을 마비시키거나 재배용 비닐하우스를 훼손하는 등 농가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내린 눈이 얼어붙을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며 낙상 사고의 위험이 발생합니다.

***사전준비** : TV나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대설정보를 숙지합니다. 녹은 눈의 원활한 배수를 위해서 배수로를 점검하고 노후화된 건물이나 시설을 점검합니다. 자택의 제설을 위한 염화 칼슘이나 모래를 준비합니다. 비상시를 대비하여 미리 비상용품을 준비하고 대피소와 대피로를 사전에 숙지합니다.

***대처방법** : 외출을 자제하고, 빙판길에 유의하며 이동할 경우에는 등산화 등 미끄럼 방지가 되어있는 신발을 착용합니다. 수시로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기상상황을 확인합니다. 고립되는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19나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③ 재난의 정의와 유형별 특징

한파

저온의 한랭 기단이 위도가 낮은 지방으로 몰아 닥쳐 겨울철에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면서 들이닥치는 추위를 의미합니다.
저온으로 인한 시설물의 피해와 저체온증, 동상, 독감 등의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전준비** : 한파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심혈관계, 호흡기 질환 등을 보유한 경우에는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합니다. 보일러 등 노출된 배관 또는 수도관을 보온재난 헌 옷을 이용하여 보온조치를 하고 온수를 약하게 틀어 조금씩 흐르도록 합니다. 환기구나 배기통이 막혀 있는지 않은 지 확인 후 가스보일러 사용하고 유류시설 장치의 동파로 인한 위험물질의 누출이나 화재, 폭발 등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시설을 보온조치합니다. 한파로 인한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이나 라디오, 유류연료 온열기 등을 준비해 둡니다.

***대처방법** : 신체 말단 부위인 손가락이나 발가락 동상에 유의하며, 손가락, 발가락에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 동상을 의심하고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듯하게 한 후 동상 부위를 잘 씻고 말립니다.
심한 한기, 피로, 불분명한 발음 등 저체온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처치를 받습니다.
심장이 약하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은 머리부분과 노출부위에 보온에 각별히 주의하고, 당뇨나 만성폐질환자는 반드시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외출 시에는 방한용품을 착용하도록 하고 빙판길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가 되어있는 신발을 착용합니다.

③ 재난의 정의와 유형별 특징

낙뢰

낙뢰는 뇌방전의 일종으로 뇌운 내 전하가 지상(대지)으로 떨어져 방전하는 현상을 낙뢰라고 말합니다. 이때 발생한 빛을 번개라 하고, 소리를 천둥이라 합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낙뢰에 인하여 평균 71건의 재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8명의 인명피해(사망2, 부상6)와 27억원의 재산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낙뢰는 정전, 화재, 전자장비 고장 등으로 이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유발하기에 각별한 주의와 사전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낙뢰를 맞게 되면 낙뢰 전류가 인체를 통과하여 호흡과 심장이 4~5분 이상 지속적으로 멈출 경우에 즉사하게 됩니다. 경상자의 경우에도 정신을 잃고 건망 증상을 보이거나 수개월간 이상감각과 근육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중상자는 몇시간 동안 사지경련이 지속되고 저혈압, 고막손상, 화상 등이 나타납니다.약 80%는 즉사하며, 20%는 치료 후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 :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낙뢰정보를 파악합니다. 집에 낙뢰가 치면 TV 안테나 또는 전선을 따라 전류가 흐를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집 안에서는 전화기나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빼 두며, 전기제품으로 부터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샤워나 설거지 등을 자제합니다. 창문은 모두 닫고 출입문이나 창문에서 거리를 유지합니다.

***야외에서**: 번개를 본 후 30초 이내에 천둥소리를 들었다면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니다. 지면에서 10cm 정도 이상 높은 절연체 위에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평지에서는 몸을 가능한 낮추고 물이 없는 움푹 파인 곳으로 대피합니다. 나무에는 낙뢰가 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접근하지 않으며, 우산 등 긴 물건은 땅에 놓고 몸에서 떨어뜨립니다. 높은 지대에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낮은 지대로 이동합니다.

***낙뢰를 맞은 경우** : 안전한 장소로 옮기고 의식여부를 확인한 후 호흡과 맥박이 멎은 경우 인공호흡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하며 119와 병원에 연락합니다. 구조대가 도달할 때까지 체온을 유지시킵니다.

③ 재난의 정의와 유형별 특징

폭염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를 뜻하며 불볕 더위라고도 합니다. 나라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30℃이상의 불볕더위가 지속되는 현상으로 정의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향후 100년간 최대 6℃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대표적인 폭염의 원인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의 영향으로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구조물은 태양열에 쉽게 달궈지며 밤에 열을 서서히 방출하는 열섬 현상이 있는데 이런 현상은 다른 지역보다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역에 더 많은 영향을 주어 폭염현상을 증폭합니다.

폭염은 사람들에게 열사병 등 온열진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전준비** : 에어컨과 선풍기 등을 사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정전에 대비하여 손전등 등 비상용품을 준비합니다. 창문의 직사광선을 막기 위해 커튼이나 필름을 설치하고 외출할 때를 위해 긴 모자, 햇빛 가리개, 자외선차단제 등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대처방법** : 낮 12시~오후 4시까지 가장 폭염이 극심한 시간에는 야외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해서 피부를 보호하고 가볍고 통풍이 잘 되는 복장을 착용하며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모자나 햇빛 가리개를 착용합니다.
낮잠 등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열사병 등 온열질환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병원에 방문합니다.
차안에 노약자가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③ 재난의 정의와 유형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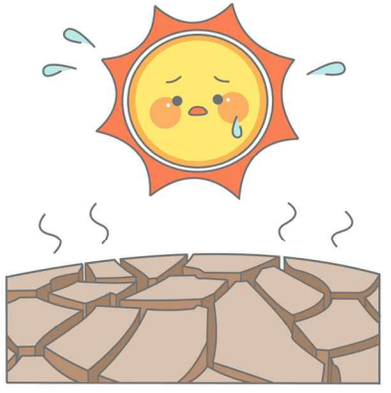
가뭄

가뭄은 비정상적인 수분 부족이 상당기간 동안 계속되는 현상으로 인하여 각종 용수공급의 부족에 따라 경제적으로 겪는 직접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과 생활의 불편을 수반하는 간접적 피해를 의미합니다.

가뭄은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작물 피해를 야기하며, 공업 분야에서도 용수 부족에 따른 생산중단의 피해가 있습니다. 생활용수 공급 부족에 따른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방** : 물이 쉽게 고갈되는 지역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물 절약 습관을 실천합니다. 식기류 세척 시나 세수 시에 물을 받아서 사용하고, 식기에 묻은 음식물 찌거기는 휴지로 닦은 후에 세척합니다. 변기의 물통에 페트병이나 벽돌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세탁할 때는 빨래를 모아서 하고 수도꼭지와 관의 누수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합니다. 절약형 샤워 꼭지나 수량조절기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대처방법** : 단수가 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조력자의 비상연락망을 사전에 확보하고 단수 발생 시 연락하도록 합니다.



③ 재난의 정의와 유형별 특징

지진

지진은 땅이 흔들리는 현상으로 급격한 단층운동에 의한 단층지진, 화산활동에 의한 화산지진, 지반의 함몰에 의한 함락 지진 등이 있습니다.
예고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피해가 크며, 시설물의 훼손과 더불어 인명피해를 야기합니다.

***사전준비**: 지진 발생 시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집안의 가구 등을 정리하고 천장이나 높은 곳의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을 치웁니다. 머리맡에는 깨지기 쉽거나 무거운 물품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비상시를 대비해 응급처치법을 숙지하고, 전열기, 가스기구 등을 단단히 고정합니다. 전기배선, 가스 등을 점검하고 위험한 부분을 수리해야 하며 가스, 전기, 수도를 차단하는 방법을 미리 숙지하여야 합니다.

지진 후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결정해 두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지에게 본인의 안전을 알릴 수 있도록 통신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모든 가족은 위험한 장소를 피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며 집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공터, 학교, 공원 등도 미리 숙지하여야 합니다.

비상시 사용할 약품.비품.장비,식품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아두고 비상시 가족이 취할 사항과 역할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실내의 단단한 탁자 아래 내력벽 사이 작은 공간 등 안전한 위치를 파악합니다. 각 방에서 위험한 위치(유리창 주변, 책장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를 확인해 두고 지진 발생 시 위험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합니다.

***대처방법**: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으로, 지진이 발생하면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몸을 보호해야합니다. 문이 비틀어져 갇히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문을 열어 출입문을 확보해야 하고, 대피 전에 가스와 전기, 수도를 차단하도록 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물체가 낙하할 위험이 있으므로 유의하며 머리를 보호하며 대피하여야 합니다.

③ 재난의 정의와 유형별 특징

해일

해일이란 폭풍, 지진, 화산폭발 등이 원인이 되어 바다의 큰 물결이 갑자기 넘쳐 들어오는 자연현상을 의미합니다.
파도로 인해 시설물이 파괴되거나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해일이 지나간 자리에 오염된 물과 흙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준비** : TV, 라디오, 인터넷을 이용하여 해일경보를 확인합니다. 해안 저지대 주민은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대피장소와 대피방법을 미리 확인합니다.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를 확보하고 가족과 이웃 비상연락망을 미리 준비합니다.

***대처방법** : 기상청의 해일경보와 시군구청 또는 소방서 대피명령이 있을 때 즉시 대피하며, 미처 대피하지 못한 경우 높은 층이나 지붕으로 대피합니다. 외부에 있는 경우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급경사가 없고 지형이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산사태

산사태는 다량의 암석이나 토사 등 지표상의 지반 재료가 경사면을 따라 급격하게 아래로 이동하는 현상으로, 태풍과 장마철에 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며 산림이나 경작지, 가옥, 인명에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사태는 집중호우 때문에 지하수위가 상승할 경우와 경사도가 높은 하천과 계곡의 사면 하부가 침식되는 경우, 그리고 단층과 균열 등이 발달한 파쇄대와 풍화가 심한 지질 상태와 지진의 진동 때문에 지반이 약해지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전준비**: 거주지역이 산사태 위험지역인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배수시설을 포함한 급경사지를 점검합니다. 산사태의 징후는 사전에 알아 두도록 하고 위험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비상시를 대비한 대피계획과 비상연락망을 준비해 둡니다.

***대처방법**: 산사태 발생 중에는 산사태 경로 밖으로 피신하며, 산사태 방향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높은 곳으로 피신합니다.

③ 재난의 정의와 유형별 특징

① 사회재난

사회재난이란 화재 · 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화생방사고 ·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 · 통신 · 교통 · 금융 · 의료 ·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재난의 특징과 그에 따른 대비 및 대응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재사고

화재는 흔하게 접하게 되는 재난이자 주로 사람들의 부주의와 방심에 의해 발생하는 재난으로서, 발생하는 대상에 따라서 건축물에 발생하는 건물화재, 산림 또는 들에 발생하는 임야화재, 자동차에 발생하는 차량화재, 선박에 발생하는 선박화재, 비행기 등에 발생하는 항공기화재, 기타 화재의 여섯 종으로 구별됩니다. 원인에 따라 분류하면 방화, 실화,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의 다섯 종류로 구분되고, 소실 정도에 따르면 전소 · 반소 · 부분연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전기의 합선이나 전기기구 불량 등의 전기화재, 담배를 피우고 난 후 아무데나 버려 이로 인한 불씨로 발생하는 화재, 어린아이 들이 촛불이나 성냥으로 장난치다가 불이 나는 경우, 가스 취급 부주의로 인한 가스화재, 석유난로 등으로 인한 유류화재 등이 있습니다.

③ 재난의 정의와 유형별 특징

***예방법** : 조리 중에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스불 위해 요리를 올려 둔 채 장시간 자리를 비우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가스누출 점검을 하고 가스경보기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인화성 액체나 기체의 보관과 사용에 유의하도록 합니다. 전선은 보이지 않는 곳에 늘어뜨려 놓지 않으며, 손상된 전선이나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선을 뽑을 때에는 플러그를 잡도록 하고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평소에 복도, 계단 등 대피로에 물건을 적재하지 않도록 하고 이웃으로 통하는 비상 칸막이 벽이나 대피공간을 사전에 확인하고 가구를 놓지 않습니다. 또한 화재감지기와 스프링클러 등 경보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합니다.

***대처방법** : 정기적인 대피훈련을 통해 대피 경로를 숙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출입문을 열기 전에 문을 손등으로 대어보아 뜨거울 경우 문을 열지 않고 다른 경로를 찾습니다.
연기가 있을 경우 낮은 자세로 코와 입을 젖은 수건으로 막고 대피하며, 전기로 작동되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불을 발견하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화재발생을 알려야 합니다.
119에 신고를 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한 것과 주소 및 위치를 침착하게 전달합니다.



③ 재난의 정의와 유형별 특징

전기사고

전기사고는 전기 충격에 의한 사망, 실신, 스파크로 인한 화상, 열상, 추락 또는 쓰러짐에 의한 상해, 누전에 의한 화재 및 폭발, 정전으로 재해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중에서 주로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와 화재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전 사고라 함은 전기 에너지에 의한 인적 피해를 총칭하며, 인체에 전류가 흘러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말한다. 인체의 생리적 변화는 전압의 크기보다는 전류의 세기와 통로에 의해 결정되며 상용 전력 에너지 외에도 정전기 및 낙뢰에 의한 사고를 포함합니다.

전기화재는 전기난로, 전기다리미 등의 전열기구와 발전기, 충전기 등의 전기 장치, 멀티 콘센트 등의 배선기구 및 정전기 스파크에 의해 발생합니다.

***예방법**: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스위치를 끄고 플러그를 뽑아 둡니다. 또한 전기제품은 규격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며, '전', 검', KS'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작동 유무를 점검합니다. 전선을 사용할 때는 꼬이지 않도록 하며 손상된 전선, 콘센트나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플러그를 뽑을 때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도록 하고, 물이 묻은 손으로 전기 제품이나 전선 및 콘센트를 만지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와 설치는 전문 면허업체에 의뢰하고 규정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처방법**: 감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 현장에 함부로 접근하지 않도록 하며 전기가 흐르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류를 차단한 후에 고무막대나 나무막대 등 도구를 이용하여 환자를 도체에서 분리하고 신속하게 119에 구조요청을 합니다. 환자는 회복자세로 눕히고 기도를 확보합니다. 체온을 유지시키며 화상부위는 물로 식히도록 합니다.
전기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큰 소리 등으로 주변에 화재사실을 알리며 119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

③ 재난의 정의와 유형별 특징

가스사고

가스사고란 가스의 누출 등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사고,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등을 의미합니다.
주로 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부주의나 시설미비, 또는 고의로 인해 가스사고가 발생합니다.

***예방법**: 가스는 화기와 충격, 마찰, 전기 스파크, 정전기 등의 점화원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대에는 차단밸브를 잠궈야 하며, 외출시나 취침시에 밸브를 반드시 확인 합니다.
가스불을 켜기 전에는 냄새를 맡아 가스가 새는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불을 켜는 순간에는 불이 붙었는지를 확인하고, 불꽃이 붉은색인 경우에는 불완전 연소이므로 공기조절밸브를 조정해야 합니다.
평소에 연소기 불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청소를 해야 하며 호스와 이음새 부분에서 가스가 새는지 수시로 점검합니다.
가스시설 중에서 호스, 가스용품, 배관과 용기, 배관과 호스 등의 연결부분이 잘 조여져 있는지 살펴보고, 오래된 시설물은 교체합니다.

***대처방법** : 가스 누설이 발견되었을 때는 발견 즉시 코크와 중간밸브 용기밸브까지 잠급니다. 폭발과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불씨를 제거하고 전기기구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출된 가스는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빗자루 등으로 밖으로 쓸어내고, 관계기관에 연락하여 점검을 받도록 합니다.

---

③ 재난의 정의와 유형별 특징

정전사고

정전은 예기치 못한 돌발 사고에 의해 전기 공급 이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전은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예상치 못한 냉난방 수요 증가로 국가 전체의 전력 생산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발생될 수 있으며, 국지적인 정전은 전력설비 결함 또는 외부 요인 (화재 · 낙뢰 등의 천재지변 및 조류접촉 · 차량충돌 등)으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전기 수요가 폭증해 공급 능력을 뛰어넘을 때 발생하는 전체적인 동시 정전 상태를 '대정전' 이라고 합니다. 대정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다양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냉방 수요가 폭증하는 여름과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겨울철에 전력 수요가 급증할 때 대정전의 발생 가능성은 더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예방 및 준비**: 여름철 과도한 냉방기기 사용을 자제하고, 평소에 누전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습관을 실천합니다. 예고정전의 경우에는 냉장고 안의 식품 보관을 위해 얼음덩이나 드라이아이스를 준비하고, PC 사용 중일 경우에는 자료를 저장하고 사용을 종료하고 전원을 차단합니다.

***대처방법**: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일부 정전인지 전체 정전인지를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예고 정전의 경우에는 거주지역 내 배전시설에 대한 수리 등을 위한 정전이므로 미리 안내된 사항에 따라 조치합니다. 전기용품은 복전 시 충격을 막기 위해 플러그를 뽑아 놓습니다.
자연재해 또는 전력설비 피해, 전력부족으로 인한 정전의 경우에는 TV, 라디오, 인터넷 및 방송 등으로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일부만 정전이 된 경우에는 누전차단기나 안전기가 동작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전기용품의 플러그를 뽑고 스위치를 끈 이후 누전차단기나 안전기를 다시 작동시킵니다. 누전인 경우에는 다시 정전이 되며, 스위치와 플러그를 한 개씩 순차적으로 작동하면서 불량 개소를 확인합니다. 옥내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선을 만지지 말고 전기공사업체에 의뢰합니다. 옥내 전기설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전력에 연락합니다.

---

③ 재난의 정의와 유형별 특징

교통사고

도로상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교통사고를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뜻합니다.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에는 음주운전, 졸음운전, 안전벨트 등 보호장구 미착용 등 운전자나 보행자에 의한 사고, 빗길이나 도로의 문제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사고, 차량의 타이어나 브레이크 파열 등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 등이 있습니다.

***예방법** : 자동차 또는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이나 철길을 부단으로 횡단하지 않도록 하고, 교통신호를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거나 운전자의 수신호가 있을 때 건너도록 합니다. 차량 탑승 중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합니다.

***대처방법**: 본인과 주위에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상자가 있는 경우 119에 신고합니다. 현장이 안전한가를 확인하고,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고 호흡을 확인한 후, 없으면 가슴을 압박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수건 등으로 눌러 지혈합니다.
구조 차량이 올 때 까지 무리하게 움직이거나 구조를 하지 않습니다. 현장이 위험한 상황에는 구조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

③ 재난의 정의와 유형별 특징

방사능사고

방사능에 의해서 방출되는 방사선은 인체에 해로우며, 이것을 다룰 때는 세심한 주의와 엄중한 관리, 완벽한 시설이 요구됩니다.
방사능에 의한 방사선 장애는 인체가 외부로부터 방사선을 쐬는 경우에도 일어나지만, 입・코・상처 등을 통해서 체내로 들어간 방사성 물질이 방출하는 방사선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방사능에 대해서는 어떤 세기 이하이면 절대 안전하다는 보증은 없으므로 원자력 발전, 원자력 함선, 핵폭발 등에 따르는 주민환경의 방사능 오염은 경계해야 합니다.

---

* **대처방법** : 사고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 지하실이나 건물의 중앙으로 대피하며, 오염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과 출입문을 닫도록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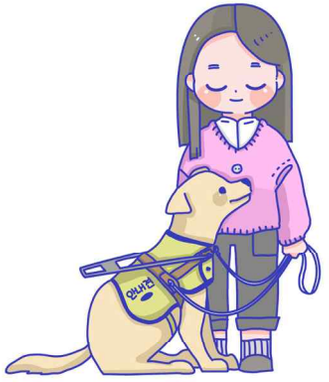
가옥 내에서 대피하는 경우에는 노란 천을 걸어 건물 내에 대피하고 있음을 표기하고, 대피소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흰 수건이나 의류를 걸어 두어 대피 완료하였음을 표시합니다.
대피 시에는 전기와 가스, 수도를 잠그도록 합니다.



01. 시각장애

① 재난 시에 어려운 것

- 재난의 상황과 알림 등이 TV로 전달되어도 영상과 문자만으로 확인 불가능합니다.
- 그러므로 재난정보를 받는 것이 늦어지거나, 전달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위의 재난 상황의 판단할 수 없어 대응이 늦어집니다.
- 이동이 어렵고, 혼자서는 대피할 수 없습니다.
  걷는 것이 익숙한 장소에서도 상황이 변하면 이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평소의 준비

(1) 본인의 준비

- 평소에 이웃과 대화나 소통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 과거의 재난사례를 보면 우선적인 지원은 지자체의 도움이 아닌 이웃 사람의 도움이었습니다.
- 라디오 등 음성으로 재난정보를 얻을 수단을 준비해 둡니다. 라디오는 평소에 휴대하면 만일에 경우 도움이 됩니다.
- 미리 지정된 대피소와 피난 경로를 확인해 둡시다. 지역의 방재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합니다.
- 지정된 대피소 외에 임시 대피소가 되는 학교, 공공시설 등의 장소도 확인해 둡니다.
- 휴대 전화의 문자와 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2) 장애별 바람과 배려사항

- 재난 시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등록하고, 대피할 때 지원을 받습니다.
- 비상시 가지고 나갈 물건 중에 휴대 라디오, 흰 지팡이, 점자판, 기타 일상생활 도구를 포함해 둡니다.
- 당뇨병, 녹내장 등으로 상비약이 있는 경우 등 의료기관의 연락처와 약의 이름 등을 기록해 둡니다.
- 자신의 이름, 혈액형, 긴급연락처 등을 적은 「장애인 카드」의 휴대도 큰 도움이 됩니다.

② 평소의 준비

(3) 주위의 준비

- 본인과 사는 가족이나 주위의 지원자와 재난 대응 회의를 열고 재난 시의 행동과 대비, 필요한 지원을 미리 논의합니다.
- 가구의 넘어짐 방지나 비상용품의 준비 등 주변의 재난대비 대책에서도 시각 장애인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 지역의 대피훈련 등에 시각 장애인에게 말해 참가하도록 합시다.
- 또한, 지역의 행사 등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 쓰기 쉽도록, 베리어 프리 설계*를 통해서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으로 1974년 국제연합 장애인생활환경전문가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 에 관한 보고서가 나오면서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음.



③ 재난이 일어났을 때

(1) 본인의 대응

-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테이블이나 책상 밑에 몸을 숨겨 몸을 보호합시다. 진동이 잦아들면 전기와 화기에 대해서 가족이나 이웃을 통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 재난 직후는 낙하물과 유리의 파편 등이 흩어져 위험할 수가 있어, 위험하니 허둥지둥 하지 않습니다.
- 재난이 일어난 후에는 인근의 사람에게 정보를 듣거나 휴대 전화와 문자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합시다.
- 가족과 이웃 사람에게 지원을 부탁하고 대피소로 이동 합니다.

(2) 주위의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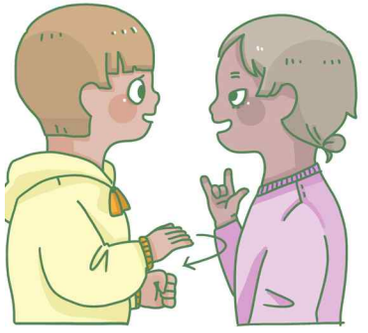
- 주위의 사람이 시각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동 등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 주위의 상황과 알고 있는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도 전달해주세요.

02. 청각장애

① 재난 시에 어려운 것

- TV나 라디오의 정보와 실내방송에 의한 귀로 들리는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정보수집과 대화의 도구로써 사용하고 있는 팩스, 전자우편, 자막방송을 하는 방송 등이 재난 시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 의사소통 등으로부터 청각장애인은 안부의 파악도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 대피소에서 방송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구호물자, 식량 배급 등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렬을 보고 처음 으로 식량 배급이라고 알고, 자신도 줄을 섰지만, 품절이 되어 버린 사례와 가끔 행동대가 왔을 때 대피소 내 방송을 통역해주었는데, 의사의 왕진이나 무료 이발 등의 정보를 처음 알게 되고 지금까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었는지 몰랐던 사실을 알고 불안해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독해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행정기관 등으로부터의 재난뉴스의 내용을 얻을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 재난에 의한 스트레스 외에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의 저해와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 재난에 관한 신청서류를 관공서에 가지고 가더라도 통역이 없으므로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각 지역에 따라 팩스의 재신청 여부, 수리비의 부담 비율이 달라서, 특히 재난 시는 정보도 엇갈리기 쉽습니다.



② 평소의 준비

(1) 본인의 준비

- 비상시의 연락처 목록을 준비해 둡니다.
  가족, 친척, 다니고 있는 병원, 청각장애인단체, 수화통역 · 요약 필기 파견사무소, 복지사무소, 수도, 전기, 가스회사,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의 연락처 팩스 번호를 적어 휴대하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 또한, 인근의 연락망과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장애인 간의 연락망 등을 평소에 준비, 비상시의 연락계통, 지휘계통을 명확하게 해 두면 비상시에 도움이 됩니다.
- 지자체, 복지시설과의 연계를 가져 자신의 존재를 알리도록 합니다.
  방재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문제와 과제 등을 지자체와 이웃과 소통해 전달해 두도록 합니다.
- 휴대 전화는 청각장애인에 있어서 재난 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재난 전언 문자와 메일의 사용방법은 꼭 알아 두도록 합니다.
- 비상소지품 중에 필담이 가능한 종이와 펜, 보청기의 예비 배터리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자신의 휴대 전화기에 맞는 충전기를 준비해 두도록 합니다.
  재난 시에 대피 장소와 경로를 확인해 둡니다.

(2) 주위의 준비

-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평소에 말을 걸거나,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도록 합시다.
  재난 시에는 평소 교류가 있는 이웃이 대피 장소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고 대피의 도움을 주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 또한, 평소에 교류를 갖기 위해서는 지역의 방재 훈련 등에 참가를 청각장애인(개인 · 단체)에도 부탁해주세요.

② 평소의 준비

- 학교와 지역 등에서 청각장애인을 초대해 이해와 교류를 깊게 하는 프로그램을 개최하면 좋겠습니다.
- 재난 알림용 문자 등, 각지에서의 긴급정보 방송수신의 구조가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방재 훈련에 참여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 들이 긴급정보를 얻은 것을 전제로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피소로 대피하십시오.」라는 정보를 어떻게 얻을 것인가가 청각장애인에게는 중요합니다.
- 재난 발생 후 다른 지자체에서 수화 통역자・요약 필기자 파견, 자원봉사자 파견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체제를 만들고, 협정을 맺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③ 재난이 일어났을 때

(1) 본인의 대응

- 우선 자신의 안부에 대해서 정보를 보호자와 주위 사람에게 알려 둡니다.
- 휴대 전화의 문자가 연결되지 않는 경우나 휴대 전화의 배터리가 떨어진 경우가 있으므로 주위의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둡니다.
- 「방재카드(대피카드)」를 평소에 준비해, 휴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청각장애인 대피카드

저는 소리가 안들립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성별	남 · 여	혈액형	RH + −
생년월일	년 월 일 생		
주소			
전화, 휴대전화			
팩스			
이메일 주소			
회사명			
소속			
주소			
전화			
팩스			

* 필요할때에는 잘라서 사용해주세요

(2) 주위의 대응

- 청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전달, 대피 등을 지원해 주세요. 비상시에는 손짓, 몸짓, 필담, 컴퓨터나 전화의 문자 표시 등 모든 수단을 구사해서 청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합시다.
- 앞에 서술한 것처럼 과거의 재난 시에 청각장애인단체가 스스로 「청각장애인 지원대책 본부」를 설치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안부의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 비상 정보송신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대책 본부」에 지원을 의뢰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02. 지체장애

① 재난 시에 어려운 것

- 장애에 따라서는 재난 발생 시의 과도한 긴장에서 보통 아무것도 아닌 동작이나 보행에 있어서도 이동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지의 경직이나 떨림으로 인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 또한, 피난에서는 중요한 휴대품이나 비상용품을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도 있습니다.
- 도로에 장애물이 넘어지거나 노면이 파손되는 등의 경우, 평소에는 도보나 휠체어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도 이동이 완전히 불가능할수 있습니다.



② 평소의 준비

(1) 본인의 준비

- 미리 평소 늘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 (인근의 이웃, 자치회, 근처의 주민센터)에는 만일의 재난 시의 지원에 대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해 둡시다.
- 그때 장애의 특성에 대해서 숨김없이 그리고 부족함이 없도록 설명하고 일상 생활상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이 없는지를 빠짐없이 알려 둡니다.
- 지장이 없다면 비상 물품이 머리맡 등에 있는 것을 이웃에게 알려둡니다. 다만 현금, 통장, 보험증, 인감도장 등 귀중품은 몸에 지니는 등 그 취급에는 주의합시다.
- 비상 물품은 최저한으로 필요한 것만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주소록 (연락처 목록) 상비약 소형 손전등, 휴대 라디오, 활동하기 편한 신발(운동화 등) 구조를 요청할 경적 등입니다. 식료품과 식수 등 운반이 어려운 경우는 대피소에서의 지원에 맡기는 것도 생각합시다.

(2) 주위의 준비

- 개인정보보호에 유의하면서 장애인과 고령자의 소유를 명확하게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 보호가 필요한 사람의 지원 체제나 네트워크는 무엇보다 지원을 받는 당사자 자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당사자의 주체적인 대피 행동 없이는 기능하지 않습니다.
- 지원하는 측은 당사자의 의욕적인 행동을 원하는 것과 함께 당사자 자신은 지원 체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스스로 확인하고, 이것의 체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는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재난 약자로서 고령자를 포함한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해서 지자체와 복지시설, 이웃끼리 보호하는 조직과 함께 하루라도 빨리 체제를 만들어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재난이 일어났을 때

(1) 본인의 대응

- 먼저 가족에게 말을 걸어 안부를 확인한 후에 다음으로 근처의 이웃에게 본인의 상황을 알립니다.
- 화재의 원인이나 전기차단기를 확인합시다. 그 후 곧바로 문을 열어 탈출로를 제대로 확보합시다.
- 스스로 대피가 가능한 사람은 외부의 상황과 이웃의 동향을 보고 휴대품 등을 확인한 후에 대피 정보를 기다립니다.

- 지진으로 진동이 심할 때는 우선 하던 일를 멈추고 튼튼한 테이블이나 책상 등의 밑으로 몸을 피합니다.

(2) 주위의 대응

- 휠체어 이용자나 하지 장애인, 체간 기능장애인은 어떠한 종류의 재난 경우에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항상 평소에 주위 사람에게 알려 두어야 합니다.

- 또한, 이런 것으로부터 장애인 당사자가 평소에 주위에 적극적인 호소를 하고, 스스로 나아가 임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생명은 먼저 스스로 지키고 그 방도를 스스로 갖추어 나갈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③ 재난이 일어났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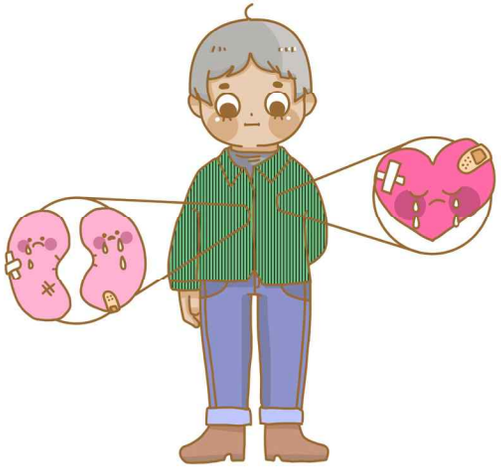




04. 내부기능장애

① 재난시에 어려운것

- 우선 대피할 때에는 주위의 지원이 필요하고, 다음의 「치료를 확보」하는 단계부터 의료기관과 관련 기관, 주민조직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외견상」 그 필요성을 인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노력하고 있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 대피소 등에서 집단생활을 일정 기간 계속될 경우 일반적으로 내부기능장애인은 면역력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감기 등의 감염증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 대피소 등에서의 식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비상식량」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장시간 지속되면 불안도 커져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 재난 시에 스토마 장구의 비상반출 준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 시에 스토마 장구를 비상반출을 못 한 경우에는 입수가 어려웠고, 가지고 나온 경우에도 대피소에 장루 설치 환자 대응 화장실이 없어 장구의 세정과 교환을 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세정 · 교환에는 약 20~30분이 필요하므로 일반 화장실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재난 시에 어려운 것

(1) 본인의 준비

- 우선 대전제로서 자신의 질환 · 장애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인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본인이 고령인 경우는 가족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인근 주민에게 잘 인식시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이 논의되고 있지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점은 잘 검토해야 합니다. 일상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의식을 갖고 교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만일 의료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재난 시에 의료기관과의 연락방법, 제2 · 제3의 의료기관을 확보, 자신에게 필요한 약제의 확보 등을 해 둡니다.
- 인공투석치료의 경우, 격일 시행이 기본이지만 일상의 자기 관리에서 재난 · 긴급 시에는 3일 정도 치료를 할 수 없는 것도 상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장루 설치 환자의 경우 자택 내외의 집 안팎의 여러 곳에 스토마 장구를 분산 보관해두면 좋을 것입니다.
- 또한, 평소에 장루 설치 환자들과 연락망을 만들고, 장구의 보관을 포함한 비상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둡니다.

② 평소의 준비

(3)주위의 준비

● 평소에 준비해둔 의료기관, 관계기관과의 연락망을 활용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이 어려워진 경우 환자단체 등에서 작성하고 있는 연락망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례에서 보았을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 재난・긴급 시 사용을 위해 일정량의 약제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치의 등과 사전 대책을 준비해 둡시다.

● 자신의 장애・치료정보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등이 작성한 「장애인 수첩」 등에 기재・휴대하는 것이 긴급 시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 비상시 반출 용품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장구, 의료기관, 약제와 그 명칭, 크기, 처방전 등의 메모를 포함해서 휴대합니다. 또한, 수분 보충이 중요한 경우에는 페트병도 소지합니다.

③ 재난이 일어났을 때

● 평소에 준비해둔 의료기관, 관계기관과의 연락망을 활용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보제공이 어려워진 경우 환자단체 등에서 작성하고 있는 연락망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례에서 보았을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 재난・긴급 시 사용을 위해 일정량의 약제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치의 등과 사전 대책을 준비해 둡시다.

● 자신의 장애・치료정보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등이 작성한 「장애인 수첩」 등에 기재・휴대하는 것이 긴급 시에 대응하는 의료기관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 비상시 반출 용품 가운데 자신에게 필요한 장구, 의료기관, 약제와 그 명칭, 크기, 처방전 등의 메모를 포함해서 휴대합니다. 또한, 수분 보충이 중요한 경우에는 페트병도 소지합니다.



05. 지적장애

① 지적장애인에 대해서 – 재난시에 어려운 것

재난 발생 시에 지적장애인이 「누구」와 「어디」에 있는가에 의해 상황은 크게 달라집니다.
혼자서 있는 경우, 또는 근처에 가족이나 지원자가 없어서 일반 시민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중증 · 경증의 장애 정도의 차이는 별도로 하고, 지적장애인의 특징으로서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지적장애인의 특징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지적장애인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위의 사람으로부터의 상황 설명을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 · 주소 · 연락처 등)을 설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체장애 등과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곤란합니다.
재난에 의한 이상 사태로 정서불안과 패닉 등이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 지적장애인이 혼자 있는 경우 재난정보가 방재방송과 방재 무선 · 유선 등으로 전달되어도 내용의 이해와 대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② 평소의 준비

(1) 본인의 준비

- 만약의 사태에 긴급 연락이나 안부 확인을 위한 긴급연락처 · 연락망을 정비하고 제3자에게도 제공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것은 살고 있는 장소 및 시설 형태, 지역 생활의 상황과 관계없이 필요합니다.
- 「장애인 카드」 (성명 · 주소 · 연락처 · 혈액형 · 이용 의료 기관명 등을 기재 한 것)을 작성해 휴대합시다. 이런 종류의 정보는 재난 시 이외에도 예를 들면 외출 중에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경우 등에, 구급차 이송과 가정에 연락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이웃 · 주민센터 · 복지시설과의 접점을 만들어 대화와 교류를 긴밀하게 해 둡시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 낫다) 장애를 숨기지 말고 필요한 지원을 평소에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원=개인 인연)

(2) 가족의 준비

- 어머니에게만 맡기지 말고 부모 협동에 의한 공유(교육)와 일상생활이 필요합니다.
- 장애가 심할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육아 · 일상생활이 어머니와 함께하기 쉽지만, 특히 남성 장애아의 경우 대피소에서의 생활도 상정하면 모친과 떨어지면 부친의 관여가 필요합니다.
- 주택의 안전점검 · 비상구 · 비상시반출품의 확인과 부모 · 자식의 협동 대피훈련을 합니다.
- 가장 어려운 계절이나 대응의 어려운 시간대를 상정하고, 그 대처에 대해서 생각해 둡시다. (예: 대도시에 있으면 통학 · 통근 시간대, 농촌에 있으면 한겨울 · 야간 등)

② 평소의 준비

(3)주위의 준비

- 재난 시에는 지적장애인 본인에게 재난 발생의 정보제공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상과 사생활 보호가 우선되는 경우 그 전제로서 장애인 측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 장애 내용, 생활상황 등을 더욱 가까운 주위의 사람이나 주민센터 등에 전달하고, 긴급 사태, 재난 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재난 시 긴급으로 최대의 중요 지원자는 자택과 요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환경을 파악해두는 것이 지역 생활 이행에 대응하는 배려와 서비스입니다.

- 시설에서는 특히 화재를 상정하고 정기적으로 대피훈련이 시행되고 있지만, 그것에 비교해서 작업소나 요양원에서는 대피훈련의 시행 빈도가 적습니다. 화재 뿐만 아니라 지진과 풍수해를 상정한 대피훈련이 필요합니다.

③ 재난이 일어났을 때

(1)주위의 준비

- 요양원과 자택에 있는 경우 특히 혼자 있는 경우는 그 소재를 신속히 주위의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어 주는 것은 안심・안전・안정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주위의 지인에게 지원을 구하는 것은 위험을 막는 수단이 됩니다. 「이웃사촌」의 존재가 큽니다.

- 외출 중, 또는 통학 ・ 통학 중의 경우, 스스로가 지적장애인인 것을 주위의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목소리로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곤란한 사람도 많으므로 「장애인 카드」를 휴대해 유용하게 활용합시다.

(2) 필요한 지원

- 혼자 있는 경우 또는 요양원에 있는 경우, 가족이나 이용시설, 지원자, 긴급연락처 등에 직접 전화 연락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연락처가 기재 되어있는 신분증 등의 정보를 통해 연락할 수 있고 안전의 확보가 가능합니다.

- 지적장애인 중에는 정기적으로 약을 먹고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그 약의 확인도 필요합니다. 또한, 발작과 간질이 있는 사람도 있으므로 그 확인도 필요합니다.

- 다동성과 배타적 경향이 있는 지적장애아에게는 그 행동에 맞추어 동행하거나 지켜보는 것이 긴급 시의 위험 회피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 개개인의 지적장애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예도 있고,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힘들지만, 인근 주민이나 주민센터의 사람이 그 지적장애인을 알고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평소에 교류하는 것이 재난 시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적장애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존재와 그 사람의 도움・지원은 긴급 시에 큰 역할을 합니다.

06. 정신장애

① 정신장애인에 대해서

- 눈앞의 일에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수 있고, 행동을 중단하거나 주위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본인에게는 합당한 언행과 태도인 것과 주위와의 차이)

- 위험한 것을 알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황, 환경의 변화에 약합니다. 변화와 돌발적인 사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곤란한 상황을 맞으면 상태가 안 좋아지기 쉽습니다.

- 병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것과 그 병의 증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병증이 있는 것의 이해 결여)

- 약을 빠뜨리지 않고 지속적 복용, 약의 작용 · 부작용 때문에 동작이 둔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야간 등 약을 복용해서 취침하고 있으면, 재난이 일어난 것도 모르는 때도 있습니다.

- 대체로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서툴러서, 필요한 정보 교환 및 상호 협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재난 시에 어려운 것

- 발생한 상황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대피하거나 몸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가의 판단이 어렵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알고 있어도 행동을 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 평소에 이웃과의 교류가 없는 경향이 있고, 인사나 대화가 없어 화재 시에도 인근에서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자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늘 다니는 병원과 행정 담당자, 장애에 관한 지식이 있는 지원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또는 사양하고 맙니다. 반대로 지원하는 측에서는 당사자의 발신이 적고 안부 확인도 포함,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 요양원에 살고 있는 사람끼리도 협력하지 못해,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같은 방의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 평소 복용하고 있는 약을 먹지 못하게 되거나 자주 방문하는 병원에서 진찰을 받을 수 없는 등 의료에 관한 불안이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면서도, 재난 시에는 입원할 수 없게 되고 병원의 분위기가 안정되지 있지 않기도 합니다. 대피소 등에서는 주민의 일부로부터 「시설에서 돌보면 된다.」 등 편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③ 평소의 준비

(1) 본인의 준비

- 평소에 함께 사는 가족과 같은 방 사람들, 시설직원, 또는 인근 주민과 「지킴이」, 주민센터와 복지사 등과 잘 논의하여, 교류를 깊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 가능하면 자신의 장애를 말하고, 평소부터 상담과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연습해두면 좋습니다.
- 비상시에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친구나 지인, 시설직원 등 필요한 연락처를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또한, 휴대 전화는 화재 시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 「방재카드(긴급 시 대응 카드)」(가칭)을 만들어 휴대하면 도움이 됩니다. 성명, 주소, 혈액형, 스스로 병과 장애에 대해서 긴급 시 연락처 늘 다니던 병원명과 주치의, 복용하고 있는 약의 이름 등을 기재합니다.
- 또한, 평소보다 2~3일분 많은 약과 처방전의 사진을 휴대하고 있는 것도 좋습니다.
- 주민센터에 따라서는 재난 시 보호 필요자 대장 등을 작성해서 재난 시의 대응에 준비합니다.
- 요양원 등의 「이용자 명부」의 공개를 요청하는 때도 있습니다.
- 스스로 개인정보의 공재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잘 검토해 둡니다.

③ 평소의 준비

(2)주위의 준비

- 자치회 등에서 정신장애인을 포함 한 지원 필요자의 이해 촉진을 추구 합니다. 지원 필요자로 불리는 사람에 관한 강연회, 연수회의 개최 시 팸플릿을 제작하고 배포하거나, 장애인시설의 견학과 이용자와의 교류회 등은 그 방법입니다
- 긴급 시의 안부 확인의 체제와 계획(누가, 누구를)을 정해두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원을 원하는 사람의 정보공유도 필요합니다.
- 보호 필요자를 위해서 「동네 지키기 활동」의 대상에 장애인과 그 시설 등을 추가합니다.
- 재난 시에는 행정의 창구가 기능 마비 상태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기관 이외의 정보거점이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장애인시설 · 복지시설 (사회복귀 시설, 작업소, 요양원, NPO 등)은 사회자원의 하나입니다. 평소 재난의 준비에서도 그 역할이 기대됩니다.



④ 재난이 일어났을 때

(1) 본인의 대응

- 큰소리로 위험의 발생에 대한 동거자나 이웃, 옆방 사람에게 전합시다. 만일의 경우, 먼 지원자보다 친밀한 가까운 친구가 의지가 됩니다.
-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라디오와 휴대 전화는 재난 시,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외출 시에는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안전한 장소와 대피 장소 등에 대해서 정보를 듣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를 때에 상담 가능한 사람을 정해서 부탁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 시설이용자는 원칙적으로는 직원의 지시를 따릅시다.
- 큰 재난 시에는 당황해서 실외로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머리를 보호하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등의 행동을 취합니다.
- 평소부터 준비해둔 「방재카드」, 상비약, 기타 비상용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2) 주위의 대응

- 대피한 사람에 대해서는「여기 있어도 좋다」는 것의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이웃의 마인드로 전합니다.
- 상황과 해야만 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전합니다.
- 상황에 따라서 유연성을 가진 대응을 합니다.
- 사전에 결정해둔 체제에 따라서 안부 확인과 연락망에 따라 필요한 연락을 합시다.
- 필요에 따라서 정신장애인 관계단체, 시설, 개인에게 요청하고,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의 지원을 요청합시다.